

# 제30차 온라인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 참관기



**강성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코로나 사태로 2년간 미뤄졌던 제30차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가 일본 주관으로 2022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오카 기타큐슈 국제센터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1984년에 제1차 대회를 서울에서 시작하여 매년 세 나라가 번갈아가며 만나 학술교류는 물론 산업보건 전문가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는데 전염병 유행으로 2년 동안 만날 수 없었다. 가톨릭대학교 이강숙 교수와 연세대학교 윤진하 교수 일행이 학회 장소인 일본의 기타큐슈 국제센터에 참석하였지만,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나마 2년간 미뤄졌던 교류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2020년에는 한국의 대구에서 제30차 대회를 아시아산업보건대회(ACOH)와 함께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1차 연기된 후 취소되었다. 2021년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호전되지 않아 2022년으로 순연되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각국의 사정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21년 11월 삼국 운영위원이 온라인 소통을 통해 2022년 6월에 오프라인으로라도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실 그때만 해도 코로나19가 호전되는 상황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일본에 방문 참가할 것을 예상했었다. 일본 측에서는 산업 의과대학 산업보건의 보수 교육과 함께 일정을 잡고 준비해서 더 이상 미루기 어 렵다는 사정도 있었다. 한국은 해외 출입국에 제한이 없었으나 중국은 여전히 제 한이 있어 물리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웠고, 일본은 입국에 제한이 있어 일본 여행 사를 통해서만 출입국이 가능하였다. 일본 측에서 신속히 여행사를 정해 지원하여 일부라도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 대회 장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일중한 학술대회는 통상 2박 3일로 개최되는데 첫날 오후에 워크숍을 하고 다음 날 개회식 및 학술 발표 그리고 마지막 날 오전에 심포지엄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 번에는 온라인 학회이므로 2일로 집약해서 개최되었다. 대회장은 산업의과대학의 모리모토 야스오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6월 23일 개막식에서는 일본산업의과대학 의 오즈지 야타카 총장과 일본 후생노동성 산업안전보건국 타케다 야수히사 국장의 축사에 이어 삼국의 대표인 중국의 마준 직업안전건강협회장, 한국의 백헌기 대한 산업보건협회장, 일본의 히가시 도시아키 전 산업의과대학총장이 개회사를 했다.

개회식 후에는 통상 3국의 기조연설이 있는데, 이번에는 모리모토 야스오 교수 의 화학물질과 직업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3국 기조연설은 송재철 교수, 마준 회장, 모리구치 지로 교토공장보건회장이 좌 장을 맡아 한국 가천대학교의 강성규 교수(필자), 중국 직업위생및중독연구소 리 차오린 박사,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카와무라 요코 교수의 기조연설이 있었다.

필자는 2013년 2월 월간 『산업보건』 제언에서 설명했던 산업보건발달 3단계론 에 대해 발표하였다. 경제발달에 따라 산업보건의 전략과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것 이다. 초기 단계는 주로 작업환경에 의한 요인 즉, 중독이나 진폐증의 문제이므로 환경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 면 환경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생활습관성질환 등 개인의 건강관리를 잘해 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작업관련성질환은 개인의 기초 질환에 작업환경의 요인 이 부가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정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개선도 잘하고, 개인 건강관리를 잘해도, 신산업에 의한 새로운 직업적 위 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질병(암이나 희귀질환)이 발생하는데, 그때 질병은 개인적인 것인지 작업환경에 의한 영향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럽 국가처럼 질병의 치료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으로 흡수하는 제도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환경개선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생활습관성질환  
등 개인의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작업관련성질환은  
개인의 기초 질환에  
작업환경의 요인이  
부가되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널리 보기

: 일중한 산업보건학술대회 참관기 ②



개선(정상적인 상병수당 제도)이 없으면 산업보전이 완성될 수 없다는 필자의 철학을 경제발전 모델에 비추어 설명했다. 리 차오린 연구원은 중국의 사업장 건강증진에 대해서, 일본의 카와무라 교수는 보다 인간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실행에서 고차원의 기술보다는 고도한 감성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였다.

오후에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중국의 리 차오린 박사과 한국의 구정완 교수, 일본의 후지노 요시히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워크숍은 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업장의 대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발표였다. 한국에서는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가톨릭대학교 명준표 교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경로 및 예방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본의 산업보전의 보수과정과 함께 개최된 관계로 특별강연이 추가되어 일본 산업의과대학의 국제활동, 일본산업위생학회의 활동과 중국 장수성의 진폐증 분석, 치과의사들의 경추부 근골격계질환 등이 발표되었다.

자유연제발표에서는 38개의 포스터가 발표되었는데, 한국에서는 16편이 발표됐다. 발표자는 연세대학교의 박화미 교수, 이원태, 윤병윤 전공의, 심주호, 이종민, 오주연 대학원생, 가천대학교의 최원준, 함승헌, 이승현 교수, 한은선, 이상혁, 이용호 전공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최아름 연구원, 차의과대학교의 박희주 교수, 한국교통대학교의 김연하 교수였다.

워크숍은 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업장의 대응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발표  
였다. 한국에서는  
김은아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장이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안전보건  
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가톨릭대학교 명준표  
교수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경로 및  
예방전략에 대해 발표  
하였다.

6월 24일 금요일에는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좌장은 중국 북경대학교의 허리화 교수, 한국 부산대학교의 강동목 교수, 일본의 호리에 세이치 교수가 맡았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건강증진과 직무스트레스였다.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윤진하 교수가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이동욱 교수가 재택근무와 일생활 균형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 역시 보수교육과정과 겹쳐 일본의 우에다 요이치 교수의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영상진단을 주제로 ILO 분류에 대한 최신지견에 대해, 중국 상해 푸단대학의 저우 지진 교수의 현대 경영에서 산업보건서비스의 변화된 요구에 대한 특별강연이 있었다. 참가자를 위한 점심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야마토 히로시 교수가 근로자의 당뇨 예방을 위해 점심 시간에 효과적인 운동 방안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오후에는 자유연제 발표가 있었다. 모두 6개의 세션에서 21개 연제가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두 8개의 연제를 발표했다. 온·오프라인 특성상 통상 삼국이 공동으로 맡던 좌장은 일본 측에서 맡아 진행했다. 한국 측 발표는 가톨릭대학교의 이강숙 교수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영향과 소진에 대한 회복에 대해, 가톨릭대학교의 안준호 교수가 한국의 당뇨병 근로자의 노동시간과 당뇨성망막염에 대해, 가천대학교 김의진 전공의가 한국의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과 승인율의 변화에 대해, 가천대학교 이완형 교수가 교대근무와 만성질환 관계의 조기연결 지표에 대해, 가톨릭대학교의 유형섭 전공의가 행정센터 직원의 직업성 손상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해, 인천 D&C사 황승호 선생이 서울 지하철의 코로나19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 요인에 대해, 가톨릭대학교 이다현 대학원생이 한국 취약계층 근로자의 금연 사업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해, 순천향대학교의 우극현 교수가 기업 규제 완화법 특별조항에 대한 개정의견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일중한 학술대회에서는 협회가 주관하므로 많은 협회 직원이 참여하고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학회라서 어려움이 있어 많은 협회 직원이 발표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내년 중한일 학술대회는 중국 시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안은 중국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의 수도였고 진시황릉이 있으며 이웃한 장안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고 많은 볼거리가 있다. 내년 중한일 대회에는 많은 협회 직원은 물론 여러 대학의 교수와 전공의, 대학원생이 참가하는 대회이기를 기대해 본다. 🍵

참가자를 위한  
점심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야마토 히로시  
교수가 근로자의  
당뇨 예방을 위해  
점심 시간에  
효과적인 운동 방안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